# 빅게임사 대신 AI·인디 전면에… 지스타, 게임산업 새바람

**부산 벡스코서 '지스타' 개막**
**전 세계 41개국 1237개사 참가**
**메인 스폰서에 뤼튼테크놀로지스**
**산업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확장**
**중기 전시·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



지스타2026 현장 /최빛나 기자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이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지스타는 인공지능(AI) 기업의 첫 메인 스폰서 참여와 해외 게임사의 존재감 확대, 인디게임 전시 강화 등을 앞세워 게임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조명한다.

19일 지스타조직위에 따르면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지스타 2026은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41개국 1237개사가 참가해 총 3445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게임사 이외의 기업이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뤼튼은 AI 캐릭터·스토리 플랫폼 '크랙'을 앞세워 생성형 AI와 게임형 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선보인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참여가 AI 기술이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를 넘어 콘텐츠 창작과 이용자 경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경쟁도 본격화됐다. 크래프톤은 국내 게임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PUBG: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 '타래: 언바운드', '에이지 트위스터', '왈츠앤잼', '템빨용사' 등 5종을 선보인다. 웹젠은 웹소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LAST STAGE'를 공개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연에 나선다.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도 주목된다. 호요버스는 '쁘띠플래닛'과 '붕괴: 넥서스 아니마'를 국내 관람객에게 선보이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코에이 테크모와 세가, 넷이즈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사들도 전시에 참여해 관람객들과 접점을 넓힌다.

반면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대형 게임사들의 대규모 전시 참여가 제한되면서 올해 지스타는 기존 대형 게임사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디게임 생태계 확대도 주요 특징이다. 인디 쇼케이스 2.0은 250개 부스 규모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106개 개발사가 참여한다. 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 개발사들이 해외 이용자와 만날 기회도 넓혔다.

게임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 'G-CON 2026'도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게임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참여해 게임 개발과 IP 확장, 산업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기업 간 거래(BTB) 전시는 21일까지 운영되며 게임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사업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네이버 치지직을 통한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현장을 찾지 못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올해 지스타는 신작을 직접 체험하는 게임쇼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AI와 글로벌 플랫폼, 인디게임까지 아우르는 산업 교류의 장으로 외연을 넓혔다. 국내 게임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통신사, 수험생 AI·문화 혜택으로 고객몰이

**SKT, 'SBS 가요대전' 방청권 제공**
**KT, 구글 AI 플러스 1개월 이용권**
**LGU+, 추첨 통해 여행상품권 증정**



SK텔레콤 모델들이 수험생 고객을 위한 혜택들을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

통신 3사가 수험생을 포함한 Z세대 공략에 나선다. AI 서비스 체험과 단말 구매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험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수험생 인증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2006년생부터 2008년생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AI 서비스 혜택을 내세웠다. SK텔레콤은 수험생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구글의 AI 서비스인 구글 AI 플러스(400GB) 2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KT도 12월 한 달간 같은 서비스를 1개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폴더블8 시리즈를 이용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버킷리스트 챌린지'를 진행한다. 구글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여행이나 취미, 자기계발 등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제작하고 SNS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문화·여가 혜택도 다양하다. SK텔레콤은 12월 24~25일 열리는 '2026 SBS 가요대전 30주년' 방청권 150장을 제공한다. 그라운드시소 인기 전시 예매권은 30% 할인하며, 신규 개통이나 기기변경을 한 수험생 선착순 5000명에게는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KT는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과 스타벅스 음료를 제공하고, 유튜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 OTT와 생활 혜택을 결합한 구독팩 가입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3000원권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버킷리스트 챌린지 참여자 전원에게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과 갤럭시 탭 S12+, 닌텐도 스위치2 등도 증정한다.

스마트폰 구매·교체 혜택도 눈에 띈다. KT는 행사 기간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을 추첨해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200만원권과 영화예매권 등을 제공한다. 갤럭시 구매 고객 500명에게는 무신사머니 10만원을 지급한다. KT 다이렉트샵에서는 아이폰18 프로와 갤럭시 Z 폴드8을 구매하고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케이스티파이 상품권도 증정한다.

SK텔레콤은 신규 개통·기기변경 수험생에게 해외 로밍 '바로 요금제'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6·폴더블8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챌린지를 열어 최신 단말의 AI 기능 활용을 유도한다. 참여자에게는 쇼핑 상품권뿐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 등 경품도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msjo@

# 일레븐랩스, 대화 인식 오류 43% 개선

정확도 높인 '스크라이브 v3' 출시
화자 구분부터 대화 맥락까지 파악

일레븐랩스는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스크라이브 v3'와 실시간 음성 인식 모델 '스크라이브 v3 라이브'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레븐랩스 자체 평가 결과, 스크라이브 v3는 이전 모델인 스크라이브 v2보다 단어 인식 오류를 27% 줄였으며, 스크라이브 v3 라이브 역시 기존 스크라이브 v2 리얼타임 대비 오류를 43% 줄였다.

특히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에서 발언자를 구분하는 기능도 강화했다. 스크라이브 v3는 3명 이상이 참여하는 녹음 환경에서 화자 분리 오류를 이전 모델보다 17% 줄였다.

실시간 대화에서 상대방이 말을 끝냈는지 판단하는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모델은 음성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함께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추더라도 AI가 대화에 끼어드는 상황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침묵 시간을 기준으로 발화 종료 여부를 판단했다.

스크라이브 v3는 브랜드명과 약어, 전문 용어 등을 최대 100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날짜와 숫자 등의 표기 방식도 지정할 수 있다. 실시간 모델은 대화 중 언어가 바뀌는 상황을 지원하고,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미리 등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에네코가 스크라이브 v3 라이브를 고객 상담용 음성 에이전트에 시험 적용한 결과, 번지 인식 정확도가 약 15% 높아졌다.

기업 고객을 위해 데이터 보안 기능도 강화했다. 일레븐랩스는 유럽연합(EU)과 인도, 싱가포르에 독립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하며, 요청 처리가 끝나면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제로 리텐션 모드'를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가트너**
# "내년 AI 지출 4조달러"

AI 열풍에 인프라 확대 전망

가트너는 내년 전 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출이 올해보다 53% 증가한 약 2조4000억달러(약 319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체 AI 지출은 47.5% 늘어난 약 4조달러(약 5320조원)로, 이 가운데 59%를 인프라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AI 최적화 서버 지출은 올해 5276억달러(약 702조원)에서 내년 9572억달러(약 1273조원)로 81.4% 늘어날 전망이다. 가트너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인 하이퍼스케일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임대 전문 클라우드 기업인 네오클라우드 사업자가 AI 인프라를 계속 늘리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메모리 가격이 치솟는 '멤플레이션'으로 AI 최적화 서버 가격이 오른 것도 이유로 들었다.

/김보민 기자 kbm@

# SKB, 해저케이블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SJC2의 부산-싱가포르 구간

SK브로드밴드가 부산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에 양자보안 국제 시험망을 구축한다. 양자컴퓨터 발달로 기존 암호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하고, 향후 국내 양자보안 기술의 해외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SK브로드밴드는 아시아 해저케이블 SJC2의 부산-싱가포르 구간에 양자보안 국제 시험망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고도화·확산 사업에서 해외 거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와 해외 현지 구간은 양자키분배(QKD), 부산~싱가포르 장거리 국제 구간은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사업의 해외 거점 수행기관으로 나서 싱가포르, 폴란드, 불가리아의 양자 테스트베드와 연계해 실증을 추진한다.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양자암호통신 시험망과 고가의 측정 장비를 함께 쓰며 기술·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공간이다.

SK브로드밴드는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양자보안 기술을 사용해 한국과 싱가포르 해저케이블 구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심층 방어'를 검증한다. 국산 양자보안 기술과 장비가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이에 따라 해저케이블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양자컴퓨터 고도화시 암호화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뒀다가 이후 해독하는 '선(先)수집, 후(後)해독'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